

# 국내 최초 ICT 접목 동물복지 미래목장 만든다

### 전북자치도-풀무원-서울대-라트바이오, 설립·공동연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과 대학 산학협력단과 손을 잡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동물복지와 한층 강화한 미래목장 설립과 공동연구에 나선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주)풀무원 이효을 총괄 CEO,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영 단장, (주)라트바이오 장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동물복지 미래 목장 표준모델 구축 △스마트 낙농 기술 교육 및 경영실습장 운영 △축산환경 대응 및 그린바이오 관련 기술 등에 관한 공동연구 △동물복지 원유를 이용한 프리미엄 유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풀무원 10억 원, 외 투자금 10억 원 총 20억 원을 투입해 진안군 성수면 소재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의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도 2025년 분에



27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효을 풀무원 총괄CEO, 김재영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구 라트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국내 최초 ICT기반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등에 대한 협약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산에 관련 예산을 수립해 미래목장 건립과 공동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동물복지 미래목장은 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고, 개체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게 된다.

또한, 로봇착유기, 분변로봇청소기, 송아지 자동포유기, 사료자동급이기 등 다양한 스마트 ICT 장비를 구축해 전자자동화 시스템의 미래목장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목장은 낙농 후계농, 신규·청년 축산인들이 스마트 낙농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ICT 기반 경영실습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낙농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높은 경제적 수익 창출이 예측돼, 낙농 인력 고령화와 장시간의 착유 시간 등으로 인한 심각한 낙농산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는 동물복지 미래 목장 운영과 축산환경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저감, 기후변화 적응 등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복지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 목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낙농 환경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이룰 전북특별자치도의 축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바른 먹거리 선도 기업인 (주)풀무원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각 협약기관의 대표들도 이 협약이 "낙농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제12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 개최

### 문화예술계·청년세대 등 다양한 시각으로 해법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 지원센터(전북연구원)는 27일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제12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전북 탄소중립 포럼은 5월 도민 참여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대 방안, 6월 기후 위기 적응 대책 마련 방안, 7월 영농 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9차, 10차, 11차 포럼을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이번 12차 포럼에서는 산업,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성진 전북 탄소중립 포럼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문화통신사업협동조합의 김지훈 대표가 나서 '불편에서 재미로 바꾸는 환경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마을 주민들이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배출 연극단'으로 활동하며 마을의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림,

게임, SNS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프리데코의 모아름드리 대표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MZ세대로 표현되는 청년세대의 주요 관심사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다루며, 청년들이 기후변화 시대를 직접 살아가야 할 세대이므로 이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포럼위원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 방법과 우수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단체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업공장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본격 가동

### 전북특별자치도·보건복지부, 신규 서비스 24시간 제공기관·긴급돌봄지원센터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는 전주에 위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익산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서비스는 도점적 행동(자해·타해 등)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

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첫 번째 유형은 24시간 1:1 돌봄서비스로,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고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활동과 야간 주거지원을 포함한 24시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현재 전주에 1개소가 8월부터 운영 중이며, 미술 활동 등의 취미활동과 야간 주거 공간에서의 신체·가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9월 중 군산에도 추가로 24시간 돌봄 제공기관이 개소될 예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주간 개별 1:1 돌봄

서비스로, 이용자의 특성에 맞춘 개인별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7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 번째 유형은 주간 그룹 1:1 돌봄 서비스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그룹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다. 이 서비스는 전북의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발달 장애인 7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방문한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작년 7월부터 운영해 온 기관으로, 이 센터는 발달 장애인의 보호자가 임원하거나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긴급상황에서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97명의 발달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 건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발달 장애인의 돌봄 시각적 대를 없애기 위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일본 가고시마 건축가협회와 교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본 가고시마 건축가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건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일본 가고시마 지역 건축사회 대표단을 맞이하고, 양 지역 간의 문화와 기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에는 가고시마 지역회 대표 시가 토오루를 포함한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교류의 주된 목적은 건축을 매개로 한 문화 및 기술 교류의 증진과 상호 이해의 확대이다. 양 지역은 건축작품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건축적 접근 방식과 창의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와 전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두 지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일본 가고시마 지역회 건축사회 간의 교류는 2011년에 시작되었다. 2012년 일본 방문에서 공



식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17년부터는 3년 주기로 상호 방문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일 관계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류가 중단되었으며, 2023년에 일본 방문을 통해 교류가 재개되었다. 이번 방문은 교류 재개 이후 일본 측 대표단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처음 방문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일본 대표단은 지난 8월 25일 한국에 도착해 28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주 한옥마을 내 전통성당, 경기전, 오목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익산 송림사, 함열 심부자 고택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을 직접 체험하고,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 도내 최초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압류 작전 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전수조사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169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압류등록 한 후, 해당 물권에 대해 인

도명령,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으로,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정의된다. 전북자치도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자료를 한국

지적정보개발원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압류등록 및 인도 명령 후 압류된 건설기계를 점유하고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특히, 폐업법인 및 교역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해당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일원	연장 : 2.5km 폭원 : 9.0m (왕복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완산구 호자로 225)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선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개계 생략(열람장소 비치)
-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 · 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기타사항
  - 권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문지한 주소나 거주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갈음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